

바른손이 행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계묘년을 맞이한 전세계 지도자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의 공격적 금리인상은 기업의 이자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위축으로 실물경제가 얼어붙어 경기침체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고, 그러한 여파로 인한 금리인상은 가뜩이나 얇은 서민들의 지갑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이 유력시 되었던 당시 부시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된 클린턴 전 대통령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욱 확실하게 든다. 클린턴 후보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선거구호로 부시의 약점을 유권자들에게 강력히 어필하는 전략으로 당선되었다고 한다. 공산주의 몰락과 걸프전쟁 승리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

은 당시 부시대통령의 압도적 인기에 대항할 마땅한 인물이 없었던 민주당은 정치신인 클린턴을 대항마로 세웠는데 놀랍게도 그는 부시의 경제 및 재정문제에 대한 약간의 실수를 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주변에 경제적 곤란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조그마한 정성을 보태주는 것이 좋다. 지난 달 29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역광장에 위치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역파출소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50대 한 시민이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하여 쓰라고 5만원권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갔다는 미담은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그 시민은 자신이 돈을 전달한다는 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파출소 문을 두드린 뒤 "여기에 웬 봉투가 떨어졌다"며 경찰관에게 말을 전하고는 사라졌는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그 돈봉투는 그 시민이 놓고 간 것이었다니 바른손이 행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구절을 떠올리는 승리제단 패밀러라면 본받고 싶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승리제단은 신도들에게 자유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친다. 자유율법은 성경 야고보서 2장에 언급되어 있는 율법인데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12절)라고 되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율법의 구체적 내용은 모호하다. 고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약 1:25)'이라고 정의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구절에 연달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율법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지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약 2:10)'라는 구절 뿐이다.

어쨌든 위의 성경 구절에 비추어 자유율법을 정의해 보면 '모든 구속을 버리고 자유함을 얻는 온전한 율법'이며 인류의 끝날(사람이 하나님에 되는 날)에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율법을 완성한 구세주 조희성님은 자유율법을 한마디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정의하셨다. 상대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기고 사랑을 베풀며, 상대의 죄와 허물을 내 죄와 허물로 여기고 대신 통한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 세해에는 자유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자.*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마귀(魔鬼) 성(城)"

나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마귀성(魔鬼城)이요, 마귀의 영(靈)이요, 마귀의 영육(靈肉)이요, 마귀의 육신(肉身)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의식만 제거하면, 나라고 하는 것만 없애버리면, 마귀 집을 부숴다가 되고 마귀영육(魔鬼靈肉)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가 되는 고로 마귀 나라가 망했다가 되고 하나님이 점령했다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게 하는 비결은 나라고 하는 것을 죽이면, 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고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나라고 하는 마귀성(魔鬼城)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파워 스트레칭!!!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까요?^^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몸에 부족한 근육량을 늘려주세요. 은행잔고와 같은 내 몸의 근육잔고를 채워 볼까요?

평소 근육단련은 활기찬 건강으로 이끌어 줍니다.

땀 피기-
동작 ①: 선 자세에서 다리는 어깨너비만큼 확장하고 손은 깍지를 끼고 위로 쭉 편다. 10초 유지, 5회.

가슴 젖히기-
동작 ②: 등 뒤로 손을 깍지껴서 잡고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가슴을 끌어 올린다. 10초 유지, 5회.

다리안기-
동작 ③: 한 다리를 접어 올려 양손으로 감싸 안고 가슴 앞으로 당겨준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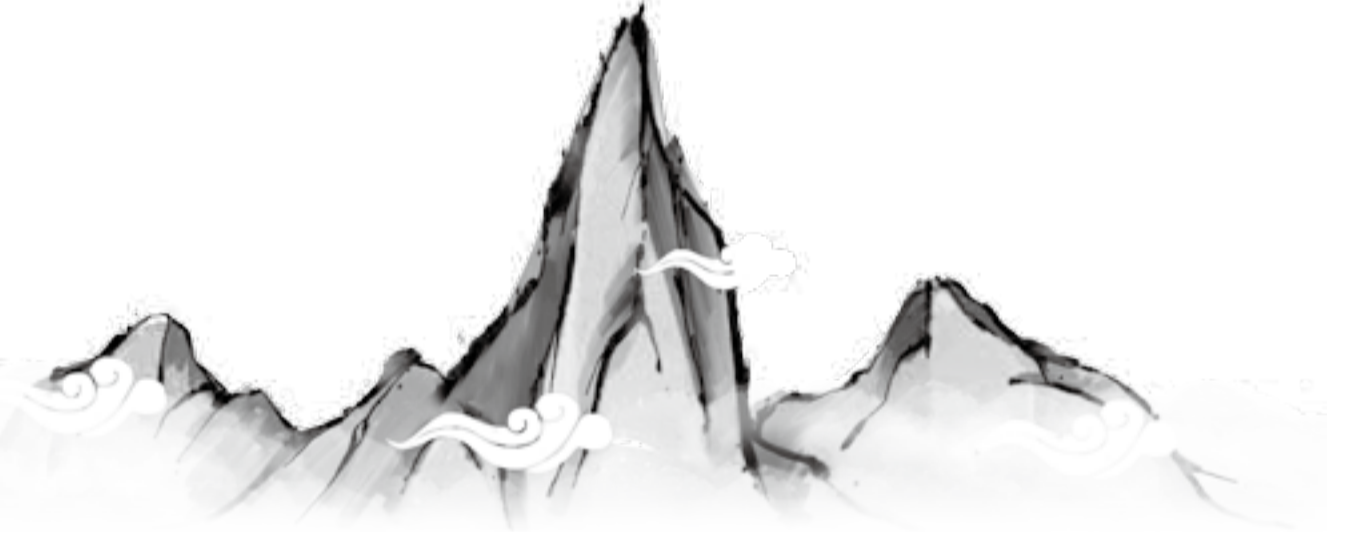
팔꿈치 누르기-
동작 ④: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구부린 상태에서 한쪽 손으로 반대편 팔꿈치를 등 뒤로 지긋이 누른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해인의 주인공이 나오면 조선이 세계의 중심국이 되리라

격암유록 新해설
수정판 제17회

未運論말운론
非山非野仁富之間 비산비야인부지간
人山人海萬姓聚舍 인산인해만성취합
小木多積之中 소목다적지중
三神山人生地 삼신산인출생지
女古老人草魚禾艸來 여고로인 초어화초래
相望對坐地 상망대좌지
三神帝王始出時 삼신제왕시출시
善者多生惡者死 선자다생악자사
可笑可歎奈何 가소가탄내하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인천과 부평 부천 사이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많은 성씨가 모이는 곳이다. 감(감)나무 가지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분(6도81궁 정도령)이 나오시는 곳이다. 노고산과 소래산 사이의 밀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오실 때 선한 자는 많이 살 것이요 악한 자는 죽을 것인데 웃을 수도 없고 탄식할 수도 없으니 어쩌면 좋을까?

嗟乎三災不遠日 차호삼재불원일
覺者其間幾何人 각자기간기하인
竹車身地 十八重土十人延壽處
죽자신지 십팔복중토십인연수처
堯之日月聖歲月 요지일월성세월
世間人生解冤地 세간인생해원지
人心天心今日是 인심천심금일시
天地人心 天降大道 四海通
천지인심중 천강대도 사해통
人生萬物更新日上時
인생만물갱신일상시
東西大道合運時 동서대도합운시
人心和而無戰化 惡者不通不知即
인심화이무전화 악자불통부지즉
無道之人皆病死 무도자인개병사

아 슬프도다! 삼재판난이 멀지 않은데 그 사이에 깨달을 자가 몇이런가? 죽자신 지십팔복(竹車身地 十八)은 범박(範朴), 중도십인연수처(重土十人 延壽處)는 계수(桂壽)의 파자이다. 범박 계수는 수명을 연장하는 곳이니라. 요임금과 같은 밝은 덕으로 태평세월을 누리나니 세상 사람들이 해원하는 곳이니라. 인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오늘이로다. 천지인은 다 마음속에 있으며 하늘이 내려준 영생의 대도가 사해에 통하여 인생과 만물이 더욱 새로워지는 날이 가장 좋은 때요 동서대도(東西大道)가 합하는 운(金木合) -극목합일된 6도 81궁의 출현 즉 삼인일三人日=春춘에는 사람의 마음이 화평해져서 전쟁이 없어지리라.

악한 자는 이러한 진리가 통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니 무도자(無道者)는 모두 병들어 죽으리라.

毒疾不犯世棄人 독질불범세기인
春氣長生永遠藥 춘기장생永遠藥
無疑海印天授得 무의해인천수득
高官大爵無覺智 고관대작무각지
英雄文章非能士 영웅문장비능사
自下達上下愚不己 자하달상하부일

先知海印出人才 선지해인출인재
幾千年間豫定運 기천년간예정운
運回朝鮮中原化 운회조선중원화
山川日月逢此運 산천일월봉차운
君道始祖回運來 군도시조회원래
訪道君子解冤日 방도군자해원일
樵謀者生弓乙裏 시모자생궁을리

속된 세상을 떠나 오직 구세주 하나님 정도령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독한 질병도 침범하지 못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화평한 기운은 영생을 주는 약이요 의심할 바 없는 해인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니라. 고관대작, 영웅호걸, 문장가라도 해인을 깨닫지 못하고 지혜가 없으면 능히 선비라 할 수 없느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어

야 높일 수 있는 이치를 모르면 천함과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해인을 들고 나오는 분은 수천 년 전부터 예정된 운수이며 이 운수(運數)가 조선에 돌아오면 조선이 세계의 중심국이 되리라. 이 운수(運數)를 받아 신천이 더욱 밝아지면 기다리던 임금이 오시리니 인간의 시조인 하나님의 운이 돌아오리라. 도를 찾는 군자들이 해원하는 날에는 감(감)나무를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공을의 이치니라.*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생명샘 | 조금함을 버리려면

승리제단은 자신과 싸워 이기는 승리를 목표로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을 이기려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싸울 수는 없다. 구세주께서 나라는 의식이 마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러한 대전제 아래서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해야 한다. 마귀의 움직임을 알지 않고서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피지기(知彼知己)가 필수이다.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면 무언가 목표를 설정한 후 그 일을 성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는 것은 자신의 진면목을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귀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마귀는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을 시키고 포기하라고 유혹한다. 마음대로 안 될 때에는 짜증과 신경질을 내게 하고 뜻대로 잘 되면 우쭐함과 자만심을 심어준다. 이러한 모든 것이 목표를 이루고 그 목표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없게 만든다.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한다.

조급한 성격의 소유자는 느긋한 마음

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조금함은 빨리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나온다. 빨리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 앞뒤를 세밀하게 재지 않고 우선 행동부터 취하고 본다. 대중 이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회로를 돌리고 무작정 뛰어든다. 안 될 때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없이 무조건 돌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조급함과 반대로 아무런 목표도 없이 빈둥거리며 여유를 부리는 것 또한 욕심이다.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방향도 모르고 세월을 보내는 것은 일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게으름에서 나온다.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은 말짱이 아니라 포기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사람은 습관과 타성에 젖어 매일 목표에 도달하려는 노력없이 하루를 보낸다. 그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치열한 하루를 보내지 않고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한탄한다.

새해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이 지났다. 아직도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늦지 않았다.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자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살아야 마귀를 죽이고 승리한다는 구세주의 가르침은 진리이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역곡제단 : (032)343-9981-2
- 수원제단 : (031)236-8465
- 안성제단 : (031)673-4635
- 평택제단 : (010)7516-1591
- 부산제단 : (051)863-6307
- 영도제단 : (010)6692-7582
- 김해제단 : (055)327-2072
- 대구제단 : (010)6530-7909
- 마산제단 : (055)241-1161
- 진주제단 : (055)745-9228
- 진해제단 : (055)544-7464
- 영천제단 : (054)333-7121
- 사천제단 : (055)855-4270
- 순천제단 : (010)3661-9025
- 정읍제단 : (010)8628-2758
- 군산제단 : (063)461-3491
- 대전제단 : (042)522-1560
- 청주제단 : (010)5484-0447
- 충주제단 : (010)9980-5805
- 양평제단 : (010)2945-8254
- 橫濱祭壇 : (045)489-9343
- 神戸祭壇 : (078)862-9522
- 下關祭壇 : (0832)32-1988
- 大阪祭壇 : (06)6451-3914
-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